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현상 및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ress Related to Economics on Subvariables of Stress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a

Heung-Kyu Kim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BSTRACT

1. The Purpose of Stud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of economics, politics, and social phenomena that cause stress. The specified goal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y were:

1)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stress related subvariables of economic phenomena such as economic structure, behavior, and moral on political phenomena.

2) to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variables that cause stress on social phenomena.

* 이 연구는 1997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Research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otal 1,191 (505 undergraduate students, 307 educators, 279 company employees, 100 house wives). The survey questionnaire items (81 items) were drawn from the pre-study, "A Study of the Relations of Stress Variables due to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based on Social Classes" (1995) and used as a research tool to collect data.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with path analysis using SPS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 of their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3. Results

1) The result of the relations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variables that cause stress on social phenomena related stress was as follows. The indirect influence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stress connected to political phenomena related stress was greater than the direct influence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stress on social phenomena related stres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indirect influence of political phenomena related stress was greater than the both direct influences of economic and social phenomena related stress.

2) The result of the relations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variables that cause stress on political phenomena related stress was as follows. The indirect influence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stress variables combined with social phenomena related stress was greater than the direct influence of economic phenomena related stress on political phenomena related stress. It showed that the indirect influence of social phenomena related stress was greater than the both direct influences of economic and political phenomena related stress.

I. 序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낙후된 식민지 경제'로
시작해서 ‘원조에 의해 명백을 유지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경제적
변론과 국가사회적인 후진성을 담포하고자 영.短期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베트남 특대, 중동건설, 올림픽 특대 등을 기회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그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 삼두사회로,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를 근대 지향적으로
변모시키는데 근본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결과 ‘후진국 경제발전의 우등생’에서 ‘개발도
상국 경제발전의 모범생’을 거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한 때 주목을 받는 위치까
지 발돋움 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런 근대화, 도시화 대중화, 산업화 과

청소년의 제로운, 성규범의 혼란과 성적발생, 배급주의와 향락주의, 세대간의 갭등, 계
추간의 갭등과 권위의 상실,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해체, 각종 부정과 비행, 퇴폐와 음악의
변장 등이 그 것이다.

돌아보면, 88 올림픽 전까지도 해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한국인의 균형.성
실성, 검소와 희생정신은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실종되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 모두
는 자기 자신이 되어 일자리를 힘들고 더러운 일을, 위험한 일을, 풍요가 사라지는 일
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노사분구에서는 점차히 ‘가는 데까지 가자
는 식의 브림크맨십(brinkmanship)’으로 일관하여 반문화, 반倫理, 무秩序, 무規範, 무節
제의 산업현장으로 변모하였다. 그 엉마후(90년대 초), 외국 언론은 ‘경계성장 페이스는
절반으로 빨리지고 무역적자와 대외채무의 증가, 인플레이 현상과 과소비 풍조, 지병 병목
과 부동산 부기, 기술개발 부족과 부자부족 등 남극에 처해 있는데 정부와 기업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들 간에 책임전가식 촉발만 계속하고 있다’(뉴스워크지, 5월 17일자)고 비
판하였다.

결국 중국의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농고 보자는 풍조의 만연’을 포집했고, 한국인
들은 ‘자기의 역량도 모르고 오시대고 있다’(鄭君, 1991. 8월호)고 비판했는가 하면, 아사
히 신문(朝日新聞)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 역시 ‘밸리도 나타난 선진
국병, 한국인이 일하지 않게 됐다’는 제목기사에서 ‘…한국이 이미 선진국병에 감염되어
젊은 이들 사이에 무력감이 폭발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3-5%였던 수출상품
불량율이 88 올림픽 후 20%까지 상승했다’(92. 3. 28)고 비판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비리가 계속 발생하
였다. ‘축제, 가격폭락, 수량조작, 거래조작, 부당이득 추구, 불법거래매출, 논물수수, 전
축 및 토지용도변경 관련 문제, 금품갈취, 재산갈취, 금행료 문제, 탈세비리, 수량조작문제, 거래비리문제, 특허·면허권의 독점비리, 경공유착형비리, 정부규제형비리 등이 그것이다(강철규, 1994:1-12).

박상용 역시 「한권형비리, 행정형비리, 각종·특허 관련 뇌물문제, 주식배당비리, 금융특혜비리, 투자배정비리」 등을 한국기업의 비리로 분류하였다(박상용, 1994:1-2).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발전, 대衆·都市社會화, 民主社會化, 産業社會화, 情報社會화 전반에서 여러 가지의 총격적 사건과 위기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만큼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외채의 계속 증가, 고임금·고비용·고물가·고금리의 계속에 따른 수출체감성 악화와 산업의 경쟁력 상실, 게다가 국민들의 의식은 '잘 먹고 보자, 꿀기고 보자,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국도의 개인주의가 행해진「맥시코화」를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YS정권은 4년 9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만 7번이나 바뀌기로써 경제의 지도력을 표류시켰고 행정은 공교회인 거듭된 끝이 되었다.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문인정부 출범이후 2년간 경제성장률 최저치 2.7%로 접어져 있던 새정부 재정부처의 55%를 접어있어 차입해야 바쁜 공기업,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그리고 비효율적 장기사업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쌓여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88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대상국에서 졸업했고, 95년 세계은행(IBRD) 차관에서 졸업을 했지만, 결국 97년도를 1개월여 남기고 치유적인 「국가부도」(IMF 구제금융 요구) 사태를 맛고 말했다. 나라 경제가 그토록 어려워지는데도 YS 대통령은 「세계화」다 「세계화」다 하면서 구호만 남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2만달러'나 '세계 5강'이나 하면서 국민들에게 허황된 풍만 심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 줄 착각했던 것 같다(동아일보, 97.11.29).

정부, 금융기관은 무분별로 단기시채를 도입하고, 기업은 달러빛으로 과잉투자를 계속했으며 정부는 「외화 돕기」하면서 해외관광과 해외투자를 권장하다가 엔화와 반도체 호황이 사라지자 나라가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치유적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선진국 문맥에 진입한 것인양 자만하던 착각의 시대는 끝났고 허세의 간치도 끝나면서 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97년 1월 평균 170명 실업률이 신청하던 것이, 98년 1월 20일부터는 1일 평균 4,200명씩 실직하게 되고, 3월 16일부터는 1일 평균 1만명씩 실업자가 양산되자, 천전자가 검증하고 임직원 200만명에 육박한다는 경제관련 보도내용들은 현
대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왔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국가 사회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경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정치현상이나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하위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현상 전반에 직접·간접의 영향 관계와 수준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현상 전반에 직접·간접의 영향 관계와 수준을 밝히는 것이다.

II. 한국인의 스트레스 측정

우리나라가 감자기 경제발전이 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국제화가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요인이 유발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이나 특수분야에 주목한 대체로서는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다양하게도 심도 있게 취급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왕범위하게도 구체의·개인의·일반의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요구된다(金興圭, 1997:38-45).

첫째, 가장상황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는 ①부부에 관련된 스트레스 ②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 ③체력(지)에 관련된 스트레스 ④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⑤경제에 관련된 스트레스 ⑥친척과 관련된 스트레스 ⑦형제·자매와 관련된 스트레스 ⑧가족간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상황에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①정치인에 관련된 스트레스 ②정치집단에 관련된 스트레스 ③정치문화에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 성별, 연령에 대한 조사와 원자잡지, 신문의 내용 분석 등을 장기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경제현상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경제현상에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으로는 ①경제구조에 관련된 스트레스, ②경제행위에 관련된 스트레스, ③경제운리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해당된다.

넷째, 사회현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회현상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사회의 구조와 사회倫理, 社會文化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항목으로는 이들 사회현상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社會病理)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례들을 고려해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현상-문제로는 ①민생기인 문제(사회분란), ②물가고 민 경제문제 ③교통문제 ④임시제도를 포함한 교육문제 ⑤가치갈등 문제 ⑥정책 및 정책권의의 정치(Statesman)의 문제와 격장한 정치적도자(Statesman)의 논쟁 문제 ⑦노사분규 및 근로의식의 상실문제 ⑧학원소호와 대학인의 본문이탈 문제 ⑨세대 갈등과 기생세대의 권위적주문 문제 ⑩가계갈등과 지역감정문제 ⑪이념갈등과 마찰문제 ⑫계층갈등 문제 ⑬성별갈등과 마찰 문제 ⑭공직기능 해이와 공직자의 비리문제 ⑮파업교 육영에 의한 학교없는 피랑자문문제 ⑯환경오염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존재)들로는 ①대통령 ②정당의 당수(총재) ③국회의원 ④법조인(판결, 변호사) ⑤특권 부유층 ⑥제발 ⑦인권인 ⑧종교인 ⑨교육자 ⑩공공권 ⑪재야 정치세력 ⑫학생운동권 ⑬폭력사범 ⑭군인 ⑮각종 노조 등이다.

다섯째, 나 자신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건강문제(신체적, 정신적), 대인관계 문제(사회생활), 능력 및 생활태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신체적 문제 및 건강에 관련된 사고 ②나의 정신건강 문제 ③성적, 기능에 관련된 문제 ④사회적 소속감 문제 ⑤성공 및 여성주문 문제 ⑥자신의 능력에 관련된 문제, (가치관, 자존심, 열등감 등) ⑦생활습관 및 행동, 태도에 관련된 문제 ⑧물질적 피해 문제 ⑨복지생활 및 여가생활 문제 ⑩급격한 환경의 변화 문제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건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학교생활 적응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건(항목)을 정리해 본다면, ①학업과 관련해서 성적 문제, 과목한 과제들, 교과에 대한 홍미문제 ②인간관계 문제(교사 및 선생님, 동급생과의 대인 관계) ③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④학생소요와 정치지향적 학원문화 문제 ⑤동아리 문제
6. 동문학 관련의 문제 등으로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프로 및 modele에 관련된 문제들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있다.

이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수리해,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진로선택 및 경쟁 등으로 대별되며, 그 구체적 스트레스 요인은, ①개인적인 자기이해 부족과 적성문제 ②진로(진학)에 대한 부모, 선생과의 감동문제 ③진로에 있어서의 개인적 감동 ④병역 및 취업문제 ⑤직업의 장래전망에 대한 무용 ⑥불충분한 준비와 정보미비 문제 ⑦진로, 취업에서의 차별문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에, 연령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직장의 물리적 환경, 개인관련 및 조직관계, 그리고 퇴사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①조명, 소음, 운동관계 ②작업 및 근무처의 환경 문제 ③공기오염 문제가이며, 개인 및 조직관련 스트레스로는 ①성적날량, 개인의 능력과 경험, 개인적 욕구 및 가치의 수준, 자기통제력 수준 등 개인에 관련된 요인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①직장의 구조 ②부처(부서)간의 역할에 따른 경쟁, 협조 문제 ③직장의 무급률 문제 ④직장의 구조 ⑤직장의 경험(개방성, 자유적, 통제적 문화) ⑥직장의 구조 ⑦직장의 구조 ⑧직장의 구조 ⑨직장의 구조 ⑩직장의 구조 ⑪직장의 구조 ⑫직장의 구조 ⑬직장의 구조 ⑭직장의 구조 ⑮직장의 구조 ⑯직장의 구조 ⑰직장의 구조 ⑱직장의 구조 ⑲직장의 구조 ⑳직장의 구조 ㉑직장의 구조 ㉒직장의 구조 ㉓직장의 구조 ㉔직장의 구조 ㉕직장의 구조 ㉖직장의 구조 ㉗직장의 구조 ㉘직장의 구조 ㉙직장의 구조 ㉚직장의 구조 ㉛직장의 구조 ㉜직장의 구조 ㉝직장의 구조 ㉞직장의 구조 ㉟직장의 구조 ㊱직장의 구조 ㊲직장의 구조 ㊳직장의 구조 ㊴직장의 구조 ㊵직장의 구조 ㊶직장의 구조 㷇직장의 구조 㷈직장의 구조 㷉직장의 구조 ㊺직장의 구조 ㊻직장의 구조 ㊼직장의 구조 ㊽직장의 구조 ㊾직장의 구조 ㊿직장의 구조 ㊱직장의 구조 ㊲직장의 구조 ㊳직장의 구조 ㊴직장의 구조 ㊵직장의 구조 ㊶직장의 구조 㷇직장의 구조 㷈직장의 구조 㷉직장의 구조 ㊺직장의 구조 ㊻직장의 구조 ㊼직장의 구조 ㊽직장의 구조 ㊾직장의 구조 ㊿직장의 구조 ㊱직장의 구조 ㊲직장의 구조 ㊳직장의 구조 ㊴직장의 구조 ㊵직장의 구조 ㊶직장의 구조 㷇직장의 구조 㷈직장의 구조 㷉직장의 구조 ㊺직장의 구조 ㊻직장의 구조 ㊼직장의 구조 ㊽직장의 구조 ㊾직장의 구조 ㊿직장의 구조 ㊱직장의 구조 ㊲직장의 구조 ㊳직장의 구조 ㊴직장의 구조 ㊵직장의 구조 ㊶직장의 구조 㷇직장의 구조 㷈직장의 구조 㷉직장의 구조 ㊺직장의 구조 ㊻직장의 구조 ㊼직장의 구조 ㊽직장의 구조 ㊾직장의 구조 ㊿직장의 구조 ㊱직장의 구조 ㊲직장의 구조 ㊳직장의 구조 ㊴직장의 구조 ㊵직장의 구조 ㊶직장의 구조 㷇직장의 구조 㷈직장의 구조 㷉직장의 구조 ㊺직장의 구조 ㊻직장의 구조 ㊼직장의 구조 ㊽직장의 구조 ㊾직장의 구조 ㊑직장의 구조.

따라서 이와의 8개 도출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나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경제현상관련 스트레스,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로 범위를 제한하고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에 주목하 였다.

1.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현대 한국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제분야의 현상으로서 경제문제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 경제행태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 경제의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 통합한 개념을 말한다. 이들의 구조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경제문제 관련 스트레스"의 (stress dimension related economic structure)은 경
제정책의 실패, 경제에 관련된 단체와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적 자세, 경제에 관련된 제반 법규정의 허물난무적 운영, 그로 인한 심각한 물가상승과 생활의 어려움, 취업난, 주택부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경제行為 관련 스트레스次元」(stress dimension related economic activities)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편의화된 노사간계, 사회성 조장의 경제시장, 소비지향적 경제행 위, 대형화, 화환화, 사회화되어가는 주택, 차량, 가전제품, 주거조정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經濟倫理 관련 스트레스次元」(stress dimension related economic ethics)은 경제적 지지계층(상류층, 빈중층)의 부도덕성, 부정해한 육구분출, 악성 부동산 투기, 탈세, 화환 혼수와 그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소, 건전한 산업윤리의 부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2. 社會現象 관련 스트레스

현재 한국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분야의 현상으로서 사회구조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 사회문화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 사회윤리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포괄·통칭한 개념을 말한다.

「社會構造 관련 스트레스次元」(stress dimension related social structure)은 교통문제, 대로와 소요사태, 지역갈등 문제, 범부각차, 주택문제, 민생치민, 사회규범 경시풍조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社會文化 관련 스트레스次元」(stress dimension related social culture)은 자동차 관련 문화의 부재, 성급한 생활제도, 긴장한 여가생활 문화의 실종, 음란·저속한 문화기의 확산, 퇴폐산업의 황폐화 등 스트레스의 원인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次元」(stress dimension related social ethics)은 환경오염, 이혼율의 급증, 가치관의 혼란,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념갈등, 세대갈등, 사회부조리, 이기주의, 정치주의적 사회분위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3. 政治現象 관련 스트레스

현재 한국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政治分野의 현상은 政治人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 政治文化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 政治集団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이 포함된概念을 말한다. 정치현상에 관련된 그들 下位變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政治人 관련 스트레스」(stress dimension related politician)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정책의 실현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언과 비이의에 관한되어 지탄받는 정치인 ②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개발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여 권위주의적 치선과 반문화선, 비양심적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 ③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민주성보다는 감정과 정신에 치우친 정치인이 관련된 스트레스를 말한다.

「政治文化 관련 스트레스」(stress dimension related political culture)은 공직자들이 앞세우는 극한의 수용과 대결의 정치문화로서 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상적 정치인(statesman)이 대우받지 못하는 정치문화 ② 정상적 토의나 의견수렴보다는 물리적 합의에 의존하는 정치문화 ③ 시대적 상호의, 정상적 정치인(loathe)에 의한 주도된 정치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말한다.

「政治集団 관련 스트레스」(stress dimension related political party)은 ① 민주화가 밀리고 달리당략을 생각하는 정당 ② 윤미란 정책 대결보다는 다수의 힘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집단 ③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주종세력으로 조직된 정치적 공동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말한다.

III. 研究假説의 設定과 研究方法

1. 研究假説의 設定

연구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가설 1: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1-1> 경제현상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올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경제현상 관련 하위 스트레스 변수(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다.

   <가설 1-2> 경제현상 관련 하위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경제현상 관련 변수(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다.

   <가설 1-3> 경제현상 관련 하위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정치현상 관련 하위 스트레스 변수(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들을 동화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다.

2) 가설 2: 정계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계현상 관련 스트레스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2-1> 정계현상의 하위 변수(정계구조, 정계행위, 정계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사회현상 관련 변수(사회구조, 사회문화, 사회윤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다.

  <가설 2-2> 정계현상의 하위 변수(정계구조, 정계행위, 정계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사회현상 변수(사회구조, 사회문화, 사회윤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다.

  <가설 2-3> 정계현상의 하위 변수(정치구조,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사회현상 관련 변수(사회구조, 사회문화, 사회윤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를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둘째, 표집대상은 총 1,191명으로서 학생(505), 교육자(307), 의사(279), 가정주부(100)이다.

셋째, 자료처리는 회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한 회로관계(path coefficient)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스트레스 변수들 간의 직접 간접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측정도구는 정계현상 관련에 24개 문항, 정계현상 관련에 26개 문항, 사회현상 관련에 3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된 도구(85문항)를 제작하였다.

다섯째, 스트레스 측정방법은 응답자의 지각에 의하여 Likert식 4단계 평정척도에 자유롭게 반응하게 하였다.

- 스트레스가 아니다 ................................................................. 1점
- 가벼운 스트레스 ................................................................. 2점
- 부드러운 스트레스 ............................................................... 3점
- 심한 스트레스 ................................................................. 4점

스트레스 문항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 -
### 표 1-1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문항 구성 내용

<table>
<thead>
<tr>
<th>하위변수</th>
<th>설 문 문항</th>
<th>문항수</th>
</tr>
</thead>
<tbody>
<tr>
<td>경제구조</td>
<td>25.26,27.34,37.38,39.40.46.47</td>
<td>10</td>
</tr>
<tr>
<td>경제행위</td>
<td>28.35,36.41.42.45,48.50</td>
<td>8</td>
</tr>
<tr>
<td>경제윤리</td>
<td>29.30,31.32.33.43.44.49</td>
<td>8</td>
</tr>
</tbody>
</table>

### 표 1-2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문항 구성 내용

<table>
<thead>
<tr>
<th>하위변수</th>
<th>설 문 문항</th>
<th>문항수</th>
</tr>
</thead>
<tbody>
<tr>
<td>사회구조</td>
<td>51.56,57.65,66.69.72,76.81,82.83.84</td>
<td>12</td>
</tr>
<tr>
<td>사회문화</td>
<td>52.58,59.61.63.68.70.73.75.77,79</td>
<td>11</td>
</tr>
<tr>
<td>사회윤리</td>
<td>53.54,55.60.62.64.67.71.74.78,82.85</td>
<td>12</td>
</tr>
</tbody>
</table>

### 표 1-3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 문항 구성 내용

<table>
<thead>
<tr>
<th>하위변수</th>
<th>설 문 문항</th>
<th>문항수</th>
</tr>
</thead>
<tbody>
<tr>
<td>정치인</td>
<td>1.4.5.7.8,14.17.21</td>
<td>8</td>
</tr>
<tr>
<td>정치문화</td>
<td>2.3.6.12.13.15.18.24</td>
<td>8</td>
</tr>
<tr>
<td>정치집단</td>
<td>9.10.11.16.19.20.22.23</td>
<td>8</td>
</tr>
</tbody>
</table>

### IV. 연구 가설의 검증과 해석

1.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사회구조, 사회문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에 직접간접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해석한다.
1) 경제평균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평균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 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 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경제평균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 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표 1-1>과 같은 모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피어도계수를 산출, 분석하여 <표 2-1>에 제시한다.

<표 2-1>에서와 같이 경제평균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 변수인 경제조직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219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이 .3260으로 나타나 간접영향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조직과 정치문화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258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221로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조직과 정치집단과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는 직접영향이 .3185인데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이 .3294로 나타나 간접영향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것은 경제조직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 정치인과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직접영향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으나 연결계수만 가지고 영향관계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제행태와 정치인과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189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이 .3946으로 나타난다. 경제행태와 정치문화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87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이 .4248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행태와 정치집단과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직접영향이 .3066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404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행태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결속과 정치인과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61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3803으로 나타났다. 경제결속과 정치문화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035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이 .3729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결속과 정치집단과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39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382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결속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조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1> 각 변수들이 사회 구조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변수</th>
<th>변수</th>
<th>직접영향</th>
<th>간접영향</th>
<th>전체영향</th>
</tr>
</thead>
<tbody>
<tr>
<td>경제 구조 (E₁)</td>
<td>정치인 (P₁)</td>
<td>.3219</td>
<td>.3260</td>
<td>.6479</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₂)</td>
<td>.3258</td>
<td>.3221</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₃)</td>
<td>.3185</td>
<td>.3294</td>
<td></td>
</tr>
<tr>
<td></td>
<td>정치인 (P₁)</td>
<td>.3189</td>
<td>.3946</td>
<td>.7135</td>
</tr>
<tr>
<td>경제 행위 (E₂)</td>
<td>정치문화 (P₂)</td>
<td>.2887</td>
<td>.4248</td>
<td>.4049</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₃)</td>
<td>.3086</td>
<td>.3082</td>
<td></td>
</tr>
<tr>
<td>경제 유교 (E₃)</td>
<td>정치인 (P₁)</td>
<td>.2961</td>
<td>.3803</td>
<td>.6764</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₂)</td>
<td>.3035</td>
<td>.3729</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₃)</td>
<td>.2939</td>
<td>.3825</td>
<td></td>
</tr>
</tbody>
</table>
지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영향관계에서 비슷한 정도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율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 수인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율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표 1-2>와 같은 모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의계수들을 산출, 분석하여 <표 2-2>에 제시한다.

<표 2-2>에서와 같이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011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3297로 나타났다. 경제구조와 정치문화와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041인데 비하여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267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구조와 정치집단과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00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3408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구조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을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행각과 정치인과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73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4134로 나타났다. 경제행각과 정치문화와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59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4248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행각과 정치집단과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도 직접영향이 .2780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432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 등을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영역과 정치인과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730인데
표 1-2 각 변수들이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모형과 회로계수

표 2-2 각 변수들이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변수</th>
<th>媒介변수 영향</th>
<th>직접영향</th>
<th>간접영향</th>
<th>전체영향</th>
</tr>
</thead>
<tbody>
<tr>
<td>경제구조 (E1)</td>
<td>정치인 (P1)</td>
<td>.3011</td>
<td>.3297</td>
<td>.6308</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2)</td>
<td>.3041</td>
<td>.3267</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3)</td>
<td>.2900</td>
<td>.3408</td>
<td></td>
</tr>
<tr>
<td>경제행태 (E2)</td>
<td>정치인 (P1)</td>
<td>.2973</td>
<td>.4134</td>
<td>.7107</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2)</td>
<td>.2859</td>
<td>.4248</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3)</td>
<td>.2780</td>
<td>.4327</td>
<td></td>
</tr>
<tr>
<td>경제세계 (E3)</td>
<td>정치인 (P1)</td>
<td>.2730</td>
<td>.3862</td>
<td>.6592</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2)</td>
<td>.2795</td>
<td>.3797</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3)</td>
<td>.2617</td>
<td>.3975</td>
<td></td>
</tr>
</tbody>
</table>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3862로 나타났다. 경제倫理와 정치문화와 社會文化 관련 스트레스 변수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795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3797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倫理와 정치집단과 社會文化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도 직접영향이 .2617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39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倫理 관련 스트레스가 社會文化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정치인이나 정치문화 또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現象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下位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가 社會文化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는 政治現象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 변수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現象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現象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下位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가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政治現象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표 1-3>과 같은 모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回路係數를 산출·분석하여 <표 2-3>에 제시한다.

<표 2-3>에서와 같이 경제現象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構造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289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3237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構造와 정치문화와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372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154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력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構造와 정치집단과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254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3272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構造 관련 스트레스 변수가 社會倫理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政治現象 관련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영향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経濟行爲와 정치인과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262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3865로 나타났다. 경濟行為와 정치문화와 社會倫理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은 .3220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 (표 2-3) 각 변수들이 \(\text{사회倫理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변수</th>
<th>媒介變数</th>
<th>영향</th>
<th>직접영향</th>
<th>간접영향</th>
<th>전채영향</th>
</tr>
</thead>
<tbody>
<tr>
<td>經済構造(E_1)</td>
<td>정치인 (P_1)</td>
<td>.3289</td>
<td>.3237</td>
<td></td>
<td>.6526</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_2)</td>
<td>.3372</td>
<td>.3154</td>
<td>.3272</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_3)</td>
<td>.3254</td>
<td></td>
<td></td>
<td></td>
</tr>
<tr>
<td>經済行為(E_2)</td>
<td>정치인 (P_1)</td>
<td>.3262</td>
<td>.3865</td>
<td></td>
<td>.7127</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_2)</td>
<td>.3220</td>
<td>.3907</td>
<td>.3966</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_3)</td>
<td>.3161</td>
<td></td>
<td></td>
<td></td>
</tr>
<tr>
<td>經済倫理(E_3)</td>
<td>정치인 (P_1)</td>
<td>.2961</td>
<td>.4086</td>
<td></td>
<td>.7047</td>
</tr>
<tr>
<td></td>
<td>정치문화 (P_2)</td>
<td>.3102</td>
<td>.3945</td>
<td>.4144</td>
<td></td>
</tr>
<tr>
<td></td>
<td>정치집단 (P_3)</td>
<td>.2903</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8. 김성우

.3966으로 나타났다. 경제행태와 정치집단과 사회범죄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은 .3161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396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행태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범죄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정치인이나 정치문화 또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행태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 및 사회범죄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61인데 비해 정치인을 통한 간접영향은 .4086으로 나타났다. 경제행태와 정치문화와 사회범죄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은 .3102인데 비해, 정치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945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행태와 정치집단과 사회범죄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은 .2903인데 비해 정치집단을 통한 간접영향은 .414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행태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범죄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정치인이나 정치문화 또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구조를 제외하고 정치인이나 정치문화 또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회로분석을 통한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는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대체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가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와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 변수에 직접간접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해석한다.

1)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 변수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태,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간의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변수의 하위변수인 사회구조, 사회문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표 2-1>과 같은 모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회귀계수를 산출·분석하여 <표 3-1>에 제시한다.

<표 3-1>에서와 같이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273인데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3320으로 간접영향이 회귀계수의 크게 나타났다.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은 3175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418로 간접영향이 회귀계수의 크게 나타났다. 경제구조와 사회윤리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316인데 비해 사회윤리를 통한 간접영향은 3277로 오히려 직접영향이 회귀계수의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타난 계수만으로는 일탈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경제행위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 직접영향이 2884인데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3531로 나타났다. 경제행위와 사회문화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589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이 382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행위와 사회윤리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95인데 사회윤리를 통한 간접영향은 342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행위 관련 스트레스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는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과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77인데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4045로 나타났다. 경제적 관련 사회문화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92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413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관련 사회윤리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03인데 비해 사회윤리를 통한 간접영향은 421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가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는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대체로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 3-1〉 각 변수들이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변수</th>
<th>媒介變數</th>
<th>영향</th>
<th>직접영향</th>
<th>간접영향</th>
<th>전체영향</th>
</tr>
</thead>
<tbody>
<tr>
<td>經濟構造</td>
<td>社會 구조 (S₁)</td>
<td>.3273</td>
<td>.3320</td>
<td>.6593</td>
<td></td>
</tr>
<tr>
<td></td>
<td>社會 문화 (S₂)</td>
<td>.3175</td>
<td>.3418</td>
<td></td>
<td></td>
</tr>
<tr>
<td></td>
<td>社會 유리 (S₃)</td>
<td>.3316</td>
<td>.3277</td>
<td></td>
<td></td>
</tr>
<tr>
<td>經濟行為</td>
<td>社會 구조 (S₁)</td>
<td>.2884</td>
<td>.3531</td>
<td>.6415</td>
<td></td>
</tr>
<tr>
<td></td>
<td>社會 문화 (S₂)</td>
<td>.2589</td>
<td>.3826</td>
<td></td>
<td></td>
</tr>
<tr>
<td></td>
<td>社會 유리 (S₃)</td>
<td>.2995</td>
<td>.3420</td>
<td></td>
<td></td>
</tr>
<tr>
<td>經濟倫理</td>
<td>社會 구조 (P₁)</td>
<td>.2977</td>
<td>.4045</td>
<td>.7022</td>
<td></td>
</tr>
<tr>
<td></td>
<td>社會 문화 (P₂)</td>
<td>.2892</td>
<td>.4130</td>
<td></td>
<td></td>
</tr>
<tr>
<td></td>
<td>社會 유리 (P₃)</td>
<td>.2803</td>
<td>.4219</td>
<td></td>
<td></td>
</tr>
</tbody>
</table>
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나.

2) 경제실태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실태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운리 관련 스트레스 변수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 변수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들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표 2-2>와 같은 모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구도계수를 산출·분석하여 <표 3-2>에 제시한다.

<표 3-2>에서와 같이 경제실태 관련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225인데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3.317로 나타났다.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117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422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구조와 사회문화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315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22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구조 관련 스트레스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행태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 및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750인데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3.794로 나타났다. 경제행태와 사회문화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442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4.102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행태와 사회문화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23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3.62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행태 관련 스트레스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문화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적상관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 및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34인데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4.014로 나타났다. 경제적상관과 사회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35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4.113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상관과 사회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820인데 비해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4.1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적상관 관련 스트레스가 전통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表 3-2 各变量在政治文化关系下的压力下表现出的影响

<table>
<thead>
<tr>
<th>变数</th>
<th>媒介变量</th>
<th>间接影响</th>
<th>直接影响</th>
<th>总体影响</th>
</tr>
</thead>
<tbody>
<tr>
<td>E₁</td>
<td>S₁</td>
<td>.3225</td>
<td>.3314</td>
<td>.6539</td>
</tr>
<tr>
<td></td>
<td>S₂</td>
<td>.3117</td>
<td>.3422</td>
<td></td>
</tr>
<tr>
<td></td>
<td>S₃</td>
<td>.3315</td>
<td>.3224</td>
<td></td>
</tr>
<tr>
<td>E₂</td>
<td>S₁</td>
<td>.2750</td>
<td>.3794</td>
<td>.6544</td>
</tr>
<tr>
<td></td>
<td>S₂</td>
<td>.2442</td>
<td>.4102</td>
<td></td>
</tr>
<tr>
<td></td>
<td>S₃</td>
<td>.2923</td>
<td>.3621</td>
<td></td>
</tr>
<tr>
<td>E₃</td>
<td>P₁</td>
<td>.2934</td>
<td>.4014</td>
<td>.6948</td>
</tr>
<tr>
<td></td>
<td>P₂</td>
<td>.2835</td>
<td>.4113</td>
<td></td>
</tr>
<tr>
<td></td>
<td>P₃</td>
<td>.2820</td>
<td>.4128</td>
<td></td>
</tr>
</tbody>
</table>
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 사회, 정치]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경제, 사회, 정치]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는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경제, 사회, 정치]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경제행위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 및 정치구조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063인일 때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3521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행위와 사회윤리 및 정치구조와의 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682인일 때 비해 사회윤리를 통한 간접영향은 389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행위 관련 스트레스가 정치구조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 보다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윤리 관련 스트레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에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 및 정치구조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3137인일 때 비해 사회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은 4032로 나타났다. 경제에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및 정치구조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이 2990인일 때 사회문화를 통한 간접영향은 4179로 나타났다. 경제에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윤리 및 정치구조 관련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서 직접영향은 2965인일 때 비해 사회윤리를 통한 간접영향은
〈표 2-3〉 각 변수들이 정치영향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모형과 회로계수

〈표 3-3〉 각 변수들이 정치영향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변수</th>
<th>변수</th>
<th>영향</th>
<th>직접영향</th>
<th>간접영향</th>
<th>전체영향</th>
</tr>
</thead>
<tbody>
<tr>
<td>E_1 기업 (E_1)</td>
<td>사회구조(S_1)</td>
<td>.3418</td>
<td>.3366</td>
<td>.6784</td>
<td></td>
</tr>
<tr>
<td></td>
<td>사회문화(S_2)</td>
<td>.3269</td>
<td>.3515</td>
<td></td>
<td></td>
</tr>
<tr>
<td></td>
<td>사회윤리(S_3)</td>
<td>.3457</td>
<td>.3327</td>
<td></td>
<td></td>
</tr>
<tr>
<td>E_2 기업 (E_2)</td>
<td>사회구조(S_1)</td>
<td>.3053</td>
<td>.3521</td>
<td></td>
<td>.6574</td>
</tr>
<tr>
<td></td>
<td>사회문화(S_2)</td>
<td>.2682</td>
<td>.3892</td>
<td></td>
<td></td>
</tr>
<tr>
<td></td>
<td>사회윤리(S_3)</td>
<td>.3154</td>
<td>.3420</td>
<td></td>
<td></td>
</tr>
<tr>
<td>E_3 기업 (E_3)</td>
<td>사회구조(P_1)</td>
<td>.3137</td>
<td>.4032</td>
<td></td>
<td>.7169</td>
</tr>
<tr>
<td></td>
<td>사회문화(P_2)</td>
<td>.2990</td>
<td>.4179</td>
<td></td>
<td></td>
</tr>
<tr>
<td></td>
<td>사회윤리(P_3)</td>
<td>.2965</td>
<td>.4204</td>
<td></td>
<td></td>
</tr>
</tbody>
</table>
420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가 정치적 집단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또는 사회문화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분석을 통한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가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는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와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론


첫째, 스트레스는 공기와 같이서 인간생활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생활의 복병이요 필 요악' (Fiedler & Garcia, 1987)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스트레스는 음식과 같은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음식은 너무 적거나 풍부하고 과식하고 채이게 되면 해듯, 스트레스도 채이면 신체와 정신에 병이 들게 된다는 시각이다.

셋째, 스트레스는 조미료와 같은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인간생활의 주된 메뉴가 아니 라 조미료, 양념과 같이서 과한적 음식겠을 비리게 만들고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보는 시각이다.

넷째, 스트레스는 '20세기의 세균'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갑자기 20세기에는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가 나타났고 이 스트레스는 채이면 해로스에는 물론 모든 질병에 관련하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는 견해로서 심각성을 말해 주는 시각이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요즘 같이 산업화, 정 보화, 지식사회화, 세계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그같은 다양한 사회의 현대인이 택할 스트레스의 범람사회에서 살아가게끔 상황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스트레스성 질환에 이환되지 않기 위해서 휴망적 사고, 협명한 자기 관리, 스트레스 상황의 예견과 사전대처, 합리적인 삶의 자세 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는 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라는 IMF 사태로 인해 모두가 경제문 제로 얼마나 불안과 우울, 공포와 초조감 속에 보냈는가!

그리고 정체적인 부정과 비리 사건을 목격할 때마다 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 람들을 얼마나 대우했고 분노에 찔 일과를 보냈는가!

그 "미움과 분노는 냉혹의 자기 파괴자"라는 것은 상식이다. 오늘날 심리학자들과 정 신의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 요소가 미움과 분노'라고 말한다. 중 오심을 갖고 있으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잠이 안온다. 심장도 뚫고 머리를 무겁게 하며 피로까지 몸고 온다. 그러므로 중요과 분노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당사자를 치명적으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주목하여 현대인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제현 상, 사회현상, 정치현상을 분석하고 그들이 스트레스 변인들이 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것이 본 연구이다.

이미 본 연구자는

1. 사회계층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스트레스 변인간의 관계(1995)
2. 정치현상 스트레스 변수가 사회현상 및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1997) 등 두 편의 선행 연구를 한 바 있다.

이제 경제현상 스트레스 변수가 사회현상 및 정치현상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의 하위변수인 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윤리 관련 변인 이 사회구조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 정치현상 관련 하위변수(정치인, 정치문화, 정치집단)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현상의 하위변수(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사회 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 관련 하위변인(정치인, 정치문화 정 치집단) 관련 스트레스 변수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 경제현상의 하위변수(경제구조, 경제행위, 경제윤리)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사회 윤리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구조를 제외하고 정치인이나 정치문화 또는 정 치집단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인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적절적인 영향보다는 대체로, 사회구조나 사회문화, 사회적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문화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는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미치는 간접영향이 더 크게 밝혀졌다.

여섯째, 경제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수들이 정치집단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영향보다는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参考文献


송대현·이종록·박한기(1986).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창간호, 제1권 제1호.


홍기선(1991. 4. 10). 스트레스란?. 제2차 스트레스 및 통증관리교실. 한국바이엘약품 주식, 서울 YMCA.


York: The Free Express.
.locale:ko
菁員明子 著, 樺葉案・權重式 共譯(1990), 스트레스와 삶의設計, 서울:永林社.
高橋義昭(1973), 都市の社會構造, 倉澤進 編, 都市社會學, 東京:東京大學出版會.
壓司與吉(1982), 現代的日本的階級と社會意識, 社會學評論, 第33巻, 第2號.